

◆ 경기도, 경기도의회 방문(2015. 5. 22) 연설 주요내용

※ 약력 : 하노버 시민당 당수(1983~1993) / 니더작센주 주총리(1990~1998) / 독일 총리(1998~2005)

<양국 관계>

- 양국은 정치, 경제, 특히 민간부분, 문화부분에서 많은 교류,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,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 하였음
- 앞으로도 정치·경제·문화 등 모든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 필요

<연정에 관하여>

- 한국에서 정당의 경계를 넘어서는 첫 번째 협력의 경험을 경기도가 시작하였음.
- 연정은 정당간에 중요한 현안을 정하고 공통의 안건을 만들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차이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것임
- 총리 재임시절 6년간 정부여당이 연방상원에서 다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연방주와도 타협을 하고 야당과도 타협을 해야 국정을 이끌수 있었음. 어떤 타협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수반했지만 **평화로운 국정 운영에 있어 연정이 장점**이 되었음.
- 독일에서는 연방하원과 상원간 협력을 비롯하여 합의에 기초한 즉, **합의를 찾아가는 문화**라는것이 정치체제의 문화로 뿌리 내렸음
- 협력이란 항상 **상호존중과 신뢰가 바탕**이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임

<통일에 관하여>

- 한국은 **신뢰형성의 정책,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 북한에 대화를 위한 손을 내밀고** 있음. 북한이 당장 잡지 않고 끊임없이 후퇴하는 일이 있더라도 대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. **경기도가 선구자적 역할**을 해야함
- 한국도 통일이 오면 일어날 수 있는 **위험을 예견**해야 함. 독일은 신속한 경제·화폐·사회통합과 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, 동독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음. 아젠다 2010 추진으로 필요했던 구조개혁을 완성했음
- 연방총리 선출 후 세금을 낮추고 사회보장제도를 개혁, 노동시장을 유연화했음. 통일이 온다면 **한국도 이런 개혁에 대해 생각**해야 될 것임